

연령과 이야기 종류에 따른 유아의 거짓말 및 도덕적 판단*

정 연 옥¹⁾

광남병설유치원

한 세 영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과 이야기 종류에 따른 유아의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7개의 유치원에 다니는 268명의 4, 5세 유아들이었다. 유아들의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1: 1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4개의 거짓말 이야기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종류에 관계없이 5세아는 4세아 보다 거짓말을 판단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 4세아는 거짓말이 아닌 경우의 이야기에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유아의 도덕적 판단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아의 거짓말 판단은 이야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도덕적 판단은 이야기 종류별로 거짓말 판단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야기 종류 중 나쁜 의도의 거짓말과 자기방어를 위한 거짓말은 나쁜 것으로 판단하여 의도중심의 판단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야기 종류에 따라 결과중심의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아기의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유아의 연령과 이야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거짓말, 도덕적 판단, 유아

* 본 논문은 2009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의 일부임.

1) 광남병설유치원 교사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evenhow@chungbuk.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유아기의 도덕성 발달은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능률 제일주의와 입시 교육에 치우쳐 결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모들로 하여금 유아기 때 형성되어야 할 기본인성교육에 소홀하고 유아들의 인지적 성취에만 관심을 가지게 해 도덕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한국 투명성기구(2008)가 발표한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8%만이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2%는 정직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할 정도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의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인 유아기를 대상으로 도덕성의 한 측면인 거짓말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또한 거짓말 관련 상황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거짓말이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꾸며대어 하는 말 또는 거짓정보를 사실처럼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신옥, 1987). 독일의 철학자 Kant(1949)는 의도적으로 하는 진실이 아닌 모든 말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거짓말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의도를 거짓말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연구는 Piaget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Piaget에 의하면 유아기는 인지발달 단계 중 겉으로 나타난 특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전조작적 사고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지적 발달특성으로 인해 유아기에 해당되는 1단계(2세~7세)는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동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아동기인 2단계(7세~11세)에 접어들면 자율적 도덕성을 발달시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결과뿐 아니라 내면의 동기나 의도를 고려한 판단을 하게 된다(지명숙, 1988). 즉, Piaget는 7세 이전의 어린 유아들은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 채 결과를 중심으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8세 이후에야 의도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피아제가 제시한 거짓말 판단의 기준은 거듭된 연구를 통해 다양해졌다. 상대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거짓말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의도에 관계없이 진실이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Bok, 1978). 이러한 관점의 한 연구(Peterson et al, 1983)는 아동 뿐 아니라 성인의 30% 까지도 말실수를 거짓말로 구분하고, 11세 아동의 95%가 과장된 말을 거짓말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즉, 상당수의 아동과 성인이 잘못된 진술을 할 의도 없이 한 실수나 과장까지도 거짓말로 분류한 것이다. 박영아(2009)는 이를 두고 의도 외의 상황이나 개인적 믿음도 거짓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시각이 반영

된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려하고, 거짓말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Lee, 2000). 이 관점의 연구들은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이타적 거짓말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아동의 거짓말 판단이 달라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적인 거짓말 분류의 기준인 “의도”를 중심으로 거짓말에 접근하고자 한다.

두 관점에서 모두 거짓말 판단에서의 연령차가 공통된 연구쟁점이었으며,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유의한 연령차를 보고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결과에 근거한 판단에서 주관적인 의도에 근거한 판단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Bussey, 1992; Peterson & Seeto, 1983; Hoffman, 1970). 7세 이전의 유아와 달리 8세 이후의 아동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이전 아동의 거짓말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되었으며(이행섭, 2002), 또 다른 연구에서도 11세 이상의 아동들은 의도적인 거짓진술을 거짓말이라고 했으나, 6세와 10세 사이의 아동은 의도적이고 비의도적인 것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우남희·이은정, 2004; 조성희, 1998). Bussey(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2학년, 5학년 아동들은 모든 진술을 거의 정확하게 평가한 반면, 유치원생은 거짓진술과 사실 진술을 각각 70% 정도만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2000). 6, 8, 10세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였고(박영아, 2008), 김희주(1987)의 연구에서도 6세, 7세, 9세 어린이는 거짓말의 의도를 고려하지 못해

서 거짓말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들이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전할 경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의도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는 점에서 Piaget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거짓말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짓말 판단에 있어 의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되고 융통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별 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거짓말 판단능력이 Piaget가 주장한 것 보다 일찍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Piaget의 주장보다 어린 나이에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Wimmer, Gruber, & Perner, 1984; 권향숙, 1989; 김신옥, 1987; 손은경, 2002; 조성희, 1998). 피아제의 주장과 유사한 연령차를 보고한 연구들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아동의 거짓말 개념 발달과 이에 대한 도덕 판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중 상당수가 대상아동의 연령을 낮추어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김신옥, 1987; 김희주, 1987; 손은경, 2002; 조성희, 1998), 대부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도를 가진 판단을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5세아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5세 아동이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참말과 거짓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손은경, 2002), 5세 이후가 되면 의도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연령증가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를 더 고려한다고 하였다(김신옥, 1987; 김희주, 1987). 오유리(2008)는 유아의 거짓말을 예측하는 실험연구에서 3세

유아의 22.2%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3세에도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Perner(1997)는 2세경부터 참과 거짓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였고, Bussey(1992) 또한 4세경부터 거짓말과 참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령차에 대해 이렇듯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방법론적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몇몇 연구들은 유아의 이해능력에 적합한 거짓말 관련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와 그림으로 제시하여 유아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쓴 연구들은 5세 유아도 거짓말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예로, Peterson과 Seeto(1983)는 5세, 8세, 9세, 11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Piaget의 과제를 보완하여 거짓말을 연구했으며 10개의 Video stories를 보여주며 거짓말여부와 선악판단여부를 알아보았다. 김신옥(1987)도 문제점을 보충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해 유아들이 거짓말에 대한 의도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김신옥은 5세 유아도 거짓말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다. Keller, Gummerrum과 Wang(2004)도 유아와 아동의 도덕적 추론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 이야기 방법을 사용하여 어린 유아도 거짓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거짓말 판단의 고전적 기준인 의도중심의 판단을 중심으로 4, 5세 유아의

거짓말 판단에 연령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도덕성 영역 내에서도 도덕성의 하위 영역별로 유아의 발달속도가 다를 수 있다. 즉, 유아의 거짓말 판단과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동시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Wimmer, Gruber와 Perner(1984)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아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주관론자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인 개념 정의 즉 선악판단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거짓말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개 의도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는 의도에 관계없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짓말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유아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덕성 발달을 설명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Piaget(1932)와 맥락을 같이 하는 Kohlberg(1975)는 도덕발달 단계를 분류함에 있어 예, 아니오, 라는 답 보다는 그 대답의 이면에 숨겨진 ‘왜’ 라는 논리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거짓말 연구에서도 특정 말과 행동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을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능력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유아가 주어진 거짓말 이야기에 있을 수 있는 의도 맞아나리오인을 고려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또는 나쁘지 않은 것인지 사고하는 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타적인 거짓말과 기만의 의도를 지닌 이기적인 거짓말을 도덕적인 면에서 비

교한다면 이타적 거짓말은 이기적인 거짓말만큼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견해(손은경, 2002)가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 한 연구는 5세 유아도 도덕적 갈등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동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도록 할 때는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essy, 1978). 이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 주어진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대개 연령차에 관심을 보였다. 연령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Bussey, 1999; Peterson et al., 1983; 손은경, 2002; 이근옥, 2001)도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짓말에 대한 개념과 선악 판단능력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권향숙, 1989; 김신옥, 1987; 김희주, 1987; 손은경, 2002; 오유리, 2008; 조성희, 1998; Bussey, 1992; Peterson & Seeto, 1983). 5세 이상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며, 판단의 정도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나(김신옥, 1987), 4세에는 벌을 받는 거짓말이 벌을 받지 않는 거짓말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여(Bussey, 1992) 4세아는 아직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의도가 반사회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며(박영아, 2008, 2009), 의도가 선하거나 유희성 의도를 지닌 거짓말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Walper & Valtin, 1992) 연령이 낮을수록 더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여(박영아, 2009), 연

령이 높을수록 의도의 의미를 파악하여 도덕적 판단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2009)는 이와 같은 연령차가 어린 아동이 이야기의 문맥을 파악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의의 거짓말의 기능을 잘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연령차를 보고한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 도덕적 판단만을 묻지 않고 거짓말에 대한 이해수준을 파악하고 질문하였기 때문에 연령차를 나타냈다고도 하였다(박영아, 2008,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늠함에 있어 연령의 차이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이해도의 정확도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의 거짓말이 의도 외에 상황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박영아, 2009),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Lee, 2000)을 고려해 볼 때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추론능력이라는 인지적 맥락과도 상관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유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 중, 거짓말의 조건과 논리를 이해하는 도덕적 추론능력은 유아의 인지적 맥락의 하나가 된다. 거짓말의 조건과 논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Wimmer, Gruber와 Perner(1984)도 제시했듯이, 거짓말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각각 따로 발달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두 변수간의 조합으로 인해 생기는 도덕적 조건이나 추론과정을 유아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나 인지적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도덕적 추론의 개념을 적용

하여 분류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도덕적 추론 중 조건적 추론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인 “p라면 q(if p, q)”의 공식(Keller, et al., 2004)은 어떤 규칙이 어떤 조건이나 행동을 규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네 개의 논리적으로 가능한 조건적 규칙을 포함한다. 즉, p와 $\sim p$, q와 $\sim q$ 를 말한다. 이 조건적 규칙의 공식은 주로 인지심리학에서 규칙과 계약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관해 연구할 때 적용되어 왔고, 이 공식에서 p와 q는 주어진 가상의 조건으로 전개되어 추론되었다. 이를 거짓말 판단과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유형의 구분에 응용해보면, 거짓이며(p) 나쁜 것(q), 거짓이며(p) 나쁘지 않은 것($\sim q$), 거짓이 아니며($\sim p$) 나쁜 것(q), 거짓이 아니며($\sim p$) 나쁘지 않은 것($\sim q$)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러한 구분은 거짓말 개념을 전제로 하고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조합한 분류이다. 거짓말과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의 이러한 조합과 분류에 의해 이야기가 주어진다면, 이는 유아에게 주어진 인지적 맥락이다. 유아가 도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상황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면, 도덕적 추론의 조건이 다를 경우 각 조건별로 인지적 맥락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도덕적 판단도 다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짓말 이야기의 종류를 위의 4가지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유아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유아가 거짓말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또는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한 몇몇 연구(손은경, 2002; 신미양, 2002; 박영아, 2008, 2009)가 있으나 다른 도덕성의 영역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편이며, 더욱이 유아를 중심으로 한 거짓말과 관련된 상황에서 도덕적 추론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의 종류에 따라 거짓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의 이해도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짓말 판단의 고전적 기준인 ‘의도’를 근거로 유아의 거짓말 판단을 살펴보고, 최근의 연구가 제시한 연령기준을 참고하여 4, 5세 유아의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거짓말과 도덕적 판단의 연령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덕교육에 적절한 연령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도덕적 추론의 조건을 기준으로 이야기 종류를 분류하고 그 이야기 종류별로 거짓말 판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거짓말 판단에 따라 도덕적 판단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조건적 규칙과 같은 논리적 이해능력이 거짓말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요인의 하나임을 밝히고 유아 도덕교육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인지적 영역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거짓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유아의 연령에 따라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차이가 있는가?

1-1. 거짓말인 경우, 유아의 연령에 따라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차이가 있는가?

1-2. 거짓말이 아닌 경우, 유아의 연령에 따라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이야기 종류별로, 유아의 거짓말 판단 및 도덕적 판단은 어떠한가?

2-1. 이야기 종류별로, 유아의 거짓말 판단은 어떠한가?

2-2. 이야기 종류별로, 거짓말 판단에 따라 유아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에 소재하는 7개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4세부터 만 5세의 26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이,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상이 56.2%, 35세 미만이 46.8%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연령도 35세 이상이 83.8%, 35세 미만이 16.2% 나타났다. 유아연령을 살펴보면, 만 5세가 52.4%이며, 만 4세는 47.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이상이 57.8%이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46.8%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도 대학교 졸업이상이 66.3%이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3.7%였다.

어머니의 종교는 무종교가 44.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는 36.0%이며, 불교는 19.3%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핵가족이 76.2%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족은 19.6%이며, 한 부모 가정은 4.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65.2%였고, 취업주부는 34.8%였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및 공무원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7.7%, 전문직 7.7%, 서비스 및 생산직이 7.3%, 기타6.2%, 일반사무직 및 보안 7.3%, 고위관리직 4.1%, 단순노동이 2.3%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31.3%, 200-300만원이 30.2%, 300-400만원이 29.8%, 100-200만원이 8.3%, 100만원 이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의 거짓말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1:1 면접법으로 구성하였다.

거짓말 이야기

유아의 거짓말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Peterson과 Seeto(1983)가 사용한 10가지 이야기와 Wimmer와 그의 동료들(Wimmer, Gruber & Perner, 1984)이 사용한 4가지의 그림을 수정, 보완하여 14가지 이야기를 만화형식의 그림으로 제시한 김신옥(198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Peterson과 Seeto(1983)의 10가지 이야기는 첫째, 사실과 다른 3가지 이야기 「과장, 나이추측, 방향추측」, 둘째, 악의 없는 거짓말 3가지 이야기 「가벼운 거짓말, 농담, 이타적 거짓말」, 셋째, 「욕설」, 넷째, 결과가 다른 자기 방어적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유아 성	남 아	134(50.0)	유아 연령	만 4세	128(47.8)
	여 아	134(50.0)		만 5세	140(52.4)
	합계	268(100.0)		합계	268(100.0)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124(46.8)	아버지 연령	35세 미만	42(16.2)
	35세 이상	141(56.2)		35세 이상	218(83.8)
	합계	265(100.0)		합계	260(100.0)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12(42.4)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88(33.7)
	대졸 이상	152(57.6)		대졸 이상	173(66.3)
	합계	264(100.0)		합계	261(100.0)
어머니 종교	불교	51(19.3)	가족 형태	핵가족	202(76.2)
	기독교/천주교	95(36.0)		대가족	52(19.6)
	무교	118(44.7)		한부모가정	11(4.2)
	합계	264(100.0)		합계	265(100.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72(65.2)	아버지 직업	단순노동	6(2.3)
	취업주부	92(34.8)		서비스 및 생산직	19(7.3)
	합계	264(100.0)		자영업	72(27.7)
총수입	100만원 미만	1(.4)		일반사무직 및 보안	17(6.5)
	100~200만원	22(8.3)		회사원 및 공무원	99(38.1)
	200~300만원	80(30.2)		전문직	20(7.7)
	300~400만원	79(29.8)		고위관리직	11(4.1)
	400만원 이상	83(31.3)		기타	16(6.2)
	합계	265(100.0)		합계	260(100.0)

거짓말 3가지이야기 「① 자기 방어적 거짓말- 중립적 결과, ② 자기 방어적 거짓말- 처벌받음 ③ 자기 방어적 거짓말 - 믿어짐」로 구성되어 있다. Wimmer와 그의 동료들(Wimmer, Gruber & Perner, 1984)의 이야기는 4가지로 의도- 결과가 조합된 거짓말 이야기로 「① 좋은 의도- 나쁜 결과, ② 나쁜 의도- 좋은 결과,

③ 좋은 의도- 좋은 결과 ④ 나쁜 의도- 나쁜 결과」 구성되어 있다. 14가지 이야기의 분류별 명칭 및 출처는 표 2와 같으며, 이야기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측정방법

만 4세,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1: 1 면접을

표 2. 거짓말 개념 조사용 이야기의 분류별 명칭 및 출처

순서	분 류	이야기 명	정 답	출 처 (인용문헌)
1	사실과 다른말	과장	거짓말	Peterson과 Secto(1983)가 사용한 이야기
2	실수로	나이추측	거짓말 아님	
3	틀린말	방향추측	거짓말 아님	
4	악의 없는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	거짓말	
5		농담	거짓말	
6		이타적 거짓말	거짓말	
7	욕 설	욕설	거짓말 아님	
8	자기 방어적 거짓말	자기 방어적 거짓말 - 중립적 결과	거짓말	Wimmer와 그의 동료들(1984)이 사용한 이야기
9		자기 방어적 거짓말 - 처벌받음	거짓말	
10		자기 방어적 거짓말 - 믿어짐	거짓말	
11	의도-결과가 조합된 거짓말	좋은 의도- 나쁜 결과	거짓말 아님	
12		나쁜 의도- 좋은 결과	거짓말	
13		좋은 의도- 좋은 결과	거짓말 아님	
14		나쁜 의도- 나쁜 결과	거짓말	

통해 위의 거짓말 이야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동화로 만든 이야기를 읽어 주었다. 각 이야기마다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질문 1: “이 이야기가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아닐까?”

질문 2: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질문 3: 착한 (나쁜)사람이라고 한 경우에,

“얼마나 착한(나쁜) 사람일까?”

질문 1과 2의 유아의 대답을 기록하고 질문 3에서 착하고 나쁜 정도를 유아의 대답대로 해당 칸에 기록하였다.

거짓말 판단의 점수. 14가지 거짓말이야기에 대한 김신옥(1987)의 논문을 살펴본 후 거짓말 판단의 정·오답 기준을 정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희주

표 3. 이야기 내용

순서	이야기 명	이야기 내용
1	사실과 다른 말 -과장	닭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아주 무서웠다. 영이는 “야! 저기 코끼리만한 닭이 있어”라고 말한 상황
2	나이추측	상대방의 나이를 추측해 보라는 말에 세 살 어리게 대답한 상황
3	방향추측	어린이 길을 잃고 어린이에게 길을 물어 보았는데 생각했던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다른 길이었던 상황
4	가벼운 거짓말	머리를 잘랐는데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물어보았을 때, 아주 예쁘다고 한 경우
5	농담	탁구공을 주워서 돌려줘야겠다고 감춘 후 잠시 후 놀렸다고 하면서 돌려주는 상황
6	이타적 거짓말	쫓기고 있는 동생을 숨겨주고 못 봤다고 하는 상황
7	욕설	차길 한가운데서 동전을 줍다가 운전사가 욕을 하는 상황
8	자기 방어적 거짓말-중립적	어머니를 돕다가 음식을 엮질렀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
9	자기 방어적 거짓말-처벌받음	물감을 엮질렀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믿지 않고 처벌하는 상황
10	자기 방어적 거짓말-믿어짐	카페트에 잉크를 엮질렀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믿어주는 상황
11	좋은 의도-나쁜 결과	미희가 찬장에 둔 것을 엄마가 냉장고로 옮겨 놓았다. 동생이 물어보았을 때, 미희는 정확히 이야기한 상황
12	나쁜 의도-좋은 결과	찬장 안에 두고 나갔는데 혼자 먹으려고 냉장고에 있다고 하는 상황
13	좋은 의도-좋은 결과	동화책 있는 장소를 그대로 가르쳐 준 상황
14	나쁜 의도-나쁜 결과	동화책 있는 장소를 다르게 가르쳐주는 상황

(1987)의 방법을 참고로 하여 어린이의 거짓말 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거짓말판단을 정확히 하면 정답으로 간주하여 1점, 거짓말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틀린 대답을 하면 0점을 주어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거짓말 14문항 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52이다. 문항간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은 거짓말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점수. 14가지의 이야기에 대해 거짓말 여부와 상관없이 주인공이 선택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는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는지 질문하였다. 유아 각 이야기의 주인공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나쁘다고 응답했는지를 6점 척도로 평정하여 면접자가 응답지에 표시하였다.

평정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유아로 하여금 착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한 후에 얼마나 착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각각 3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야기의 의도와 맞게 착하고 나쁨을 잘 판단한 유아의 3점 척도 평정점수를 4-6점으로 평정하고, 이야기의 의도와 맞지 않게 착하고 나쁨을 잘못 판단한 유아의 3점 척도 점수는 1-3점으로 평정하였다. 예를 들면, 이야기의 내용이 나쁜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나쁘다고 올바르게 판단한 유아가 아주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 6점, 보통 정도로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 5점, 조금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우 4점이 된다. 그러나 이를 착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대답하는 유아가 조금 착하다고 하면 3점, 보통으로 착하다고 하면 2점, 아주 착하다고 하면 1점이 되는 형태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한 것이고, 주인공의 의도를 잘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약해지는 것으로 주인공의

의도를 잘 못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들은 조금, 보통, 아주 많이 의 3점 척도로 판단하였지만, 연구자의 평정은 6점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나쁜지 착한지 판단자체에 오류를 일으키는 유아들을 고려한 방식으로, 판단을 잘 못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도록 조직하였다.

정리하면, 유아가 주인공의 선한 의도를 잘 파악하여 착한 행동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를 주었고 또한 악한 의도를 잘 파악하여 나쁜 행동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를 주었다. 즉 거짓말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의도가 좋은 나쁜든 관계없이, 주인공의 의도를 잘 판단하여 선악판단 기준으로 의도를 고려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의도 파악을 잘못 판단한 경우 낮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점수의 방향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도덕적 판단 14문항 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0이다.

표 4.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평가 점수

변인	참, 거짓의 의미	문항		높은 점수의 의미: 주인공의 의도를 잘 판단한 것임
		수	번호	
이야기 내용 종류	A 거짓말이며 나쁜 사람인 경우	5	8, 9 10, 12, 14	거짓말인 경우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임
	B 거짓말이 아니며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	4	2, 3, 11, 13	거짓말이 아닌 경우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임
	C 거짓말이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	4	1, 4, 5, 6	거짓말인 경우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착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임
	D 거짓말이 아니나 나쁜 사람인 경우	1	7	거짓말이 아닌 경우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임

3. 자료수집절차

우선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척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공자 3인이 내용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측정도구가 80년대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문화, 시대, 연령에 적합한지도 논의되었다. 보편적인 일상적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종류로 이루어져 국내 문화와 현재시점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개발당시 5세 이상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도구이나 현대의 발달이 앞당겨진 유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4, 5세를 대상으로 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유아교육 및 아동학을 전공한 연구자 2인이 척도의 사용을 결정한 후,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면접지와 코딩기준을 마련하였다. 면접에 필요한 조건 및 면접요령 등을 논의하여 이를 면접에 임하는 연구자가 숙지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도구와 코딩기준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연구자 1인이 만 5세 59명 유아와 1:1 면접을 실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면접요령과 코딩방법, 척도제시방법 등의 문제점을 연구자 2인 외 아동학 전공자 1인이 추가로 참가하여 논의하였고,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 기간은 2008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만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과정을 통해 훈련된 연구자 1인이 1:1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유치원 교실

옆 빈 사무실에서 총 268명의 유아와 1인당 약 10분씩 연구자가 그림을 보여 주며 읽어주면서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거짓말의 개념 및 선악 판단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거짓말 판단

이야기가 거짓말인 경우 유아의 연령에 따라 거짓말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

표 5에 의하면 이야기가 거짓말인 경우 9가지 중 3가지 이야기에서 유아는 거짓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장」에서 4세($M=.58$)보다 5세($M=.75$)가 거짓말 판단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0, p<.01$). 「가벼운 거짓말」도 4세($M=.73$)보다 5세($M=.89$)가 거짓말 판단을 더 잘하였다($t=-3.36, p<.01$). 또한 「이타적 거짓말」도 4세($M=.83$)보다 5세($M=.91$)가 더 판단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3, p<.05$).

표 5. 연령에 따른 거짓말 판단의 차이 - 거짓말인 경우

이야기 명	거짓말 판단			도덕적 판단		
	4세(128명)	5세(140명)	t	4세(128명)	5세(140명)	t
	M(SD)	M(SD)		M(SD)	M(SD)	
과장	.58(.50)	.75(.43)	-3.00**	3.46(2.06)	2.89(1.79)	2.41*
가벼운 거짓말	.73(.44)	.89(.31)	-3.36**	3.10(1.84)	2.74(1.57)	1.76
농담	.84(.37)	.88(.33)	-.10	2.72(1.73)	2.34(1.43)	1.98*
이타적 거짓말	.83(.38)	.91(.28)	-2.13*	3.29(1.92)	4.01(5.59)	-1.39
자기 방어적 거짓말 - 중립적 결과	.98(.15)	.98(.12)	-.55	5.01(1.21)	5.02(1.01)	-.10
자기 방어적 거짓말 - 처벌받음	.98(.15)	.99(.08)	-1.10	4.95(1.24)	5.04(.90)	-.69
자기 방어적 거짓말 - 믿어짐	.95(.23)	.98(.15)	-1.44	4.91(1.33)	5.08(.89)	-1.20
나쁜 의도 - 좋은 결과	.44(.50)	.51(.50)	-1.14	3.02(2.03)	3.41(1.93)	-1.65
나쁜 의도 - 나쁜 결과	.98(.12)	.99(.12)	-.09	5.22(1.16)	5.46(.90)	-1.95

* $p < .05$, ** $p < .01$

※ 거짓말 여부를 바르게 판단한 경우 1점, 잘못 판단한 경우 0점.

도덕적 판단에서는 「과장」($t=2.41$, $p<.05$)과 「농담」($t=1.98$, $p<.05$)에서 유의한 연령차를 보여 5세아보다 4세아가 두 거짓말이 선한 것이라고 잘 판단한 성향이 더 강했다.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경우 유아의 연령에 따라 거짓말 판단에 차이가 있는가?

표 6에 의하면 거짓말이 아닌 이야기 5가지 중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4가지 이야기에서였다. 「좋은 의도-나쁜 결과」 이야기에서 좋은 의도를 알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한 유아는 4세($M=.31$)보다 5세($M=.56$)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28$, $p<.001$).

또한 「좋은 의도 - 좋은 결과」도 의도를 알고 판단한 유아는 4세($M=.80$) 보다 5세($M=.91$)가 더 많아 5세 유아들이 거짓말 판단을 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6$, $p<.01$) 「나이추측」 「욕설」 또한 4세($M=.45$, $M=.41$)보다 5세($M=.59$, $M=.55$)가 판단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0$, $p<.05$; $t=-2.37$, $p<.05$). 「방향추측」에서는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덕적 판단에서는 「좋은 의도-나쁜 결과」($t=-4.28$, $p<.05$)과 「좋은 의도-좋은 결과」($t=-3.03$, $p<.05$)에서 유의한 연령차를 보여 4세아보다 5세아가 두 경우를 선한 것이라고

표 6. 연령에 따른 거짓말 판단의 차이 - 거짓말이 아닌 경우

이야기 종류	거짓말 판단			도덕적 판단		
	4세(128명)	5세(140명)	t	4세(128명)	5세(140명)	t
	M(SD)	M(SD)		M(SD)	M(SD)	
나이추측	.45(.50)	.59(.49)	-2.30*	4.07(1.81)	4.28(1.80)	-.94
방향추측	.11(.31)	.14(.34)	-.65	2.63(1.70)	2.39(1.48)	1.24
욕설	.41(.49)	.55(.50)	-2.37*	4.88(1.55)	4.68(1.60)	1.02
좋은 의도-나쁜 결과	.31(.47)	.56(.50)	-4.28***	2.18(1.94)	3.99(1.92)	-4.28*
좋은 의도-좋은 결과	.80(.40)	.91(.29)	-2.54**	3.02(1.67)	3.41(1.21)	-3.03*

* $p < .05$, ** $p < .01$, *** $p < .001$

잘 판단한 성향이 더 강했다.

2. 이야기 종류에 따른 유아의 거짓말 및 도덕적 판단

유아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이야기 종류별로, 거짓말 판단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이야기 종류에 따라 거짓말 판단여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7).

A유형은 거짓말이며 나쁜 사람인 경우에 해당되며, 거의 모든 유아들이 「자기 방어적 거짓말-중립적」, 「자기 방어적 거짓말-처벌 반응」, 「자기 방어적 거짓말-믿어짐」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는 바른 판단을 더 많이 하였다. 의도-결과가 조합된 거짓말인 「나쁜 의도-좋은 결과」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을 더 많이 하여 많은 유아들이 결과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다른 이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나쁜 의도-나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유아가 거짓말이라는

바른 판단을 더 많이 하였다.

B유형은 거짓말이 아닌 경우인데, 실수로 틀린 말인 「나이추측」과, 「좋은 의도-좋은 결과」의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하여 의도중심의 판단을 잘 하였으나 반대로 「방향추측」과 「좋은 의도-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하여 다소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유형은 거짓말이며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이며, 「과장」, 「농담」, 「가벼운 거짓말」, 「이타적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라는 판단을 더 많이 하였다. D유형은 「욕설」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단을 잘 한 유아가 조금 더 적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이야기 종류별로 거짓말 판단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살펴보고, 역시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A유형의 경우 거짓말이며 나쁜 행동을 한 상황인데, 「자기 방어적 거짓말 세 가지」와 「나쁜 의도-나쁜 결과」의 이야기에 대해 거의 모든 유아들이 거짓말이라고 대답하여 sample 차이가 큰 이유로 t-test를 실

표 7 거짓말 판단 여부 및 도덕적 판단 (N=268)

유형	이야기명	거짓 여부	거짓말 판단	도덕적 판단	t
			빈도(%)	평균	
A 거짓말이며 나쁜 사람인 경우	8. 자기 방어적 거짓말 - 중립적	거짓말	263(98.1)	5.06	-
		거짓말아님	5(1.9)	2.80	
	9. 자기 방어적 거짓말 - 처벌받음	거짓말	264(98.5)	5.03	-
		거짓말 아님	4(1.5)	2.25	
	10. 자기 방어적 거짓말 - 믿어짐	거짓말	258(96.3)	5.09	-
		거짓말 아님	10(3.7)	2.70	
B 거짓말이 아니며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	12. 나쁜 의도 - 좋은 결과	거짓말	127(47.4)	4.83	19.86***
		거짓말 아님	141(52.6)	1.77	
	14. 나쁜 의도 - 나쁜 결과	거짓말	264(98.5)	5.38	-
		거짓말 아님	4(1.5)	3.00	
	2. 실수로 틀린 말 - 나이 추측	거짓말	127(47.4)	2.83	-15.89***
		거짓말 아님	141(52.6)	5.39	
C 거짓말이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	3. 실수로 틀린 말 - 방향 추측	거짓말	235(87.7)	2.14	-13.03***
		거짓말 아님	33(12.3)	5.15	
	11. 좋은 의도 - 나쁜 결과	거짓말	149(55.6)	2.10	-21.41***
		거짓말 아님	119(44.4)	5.28	
	13. 좋은 의도 - 좋은 결과	거짓말	39(14.6)	2.62	-9.78***
		거짓말 아님	229(85.4)	5.53	
D 거짓말이 아니나 나쁜 사람인 경우	1. 사실과 다른 말 - 과장	거짓말	179(66.8)	2.20	-16.35***
		거짓말 아님	89(33.2)	5.11	
	4. 악의 없는 거짓말 - 농담	거짓말	219(81.7)	2.42	-12.27***
		거짓말 아님	49(18.3)	5.08	
	5. 악의 없는 거짓말 - 가벼운 거짓말	거짓말	230(85.8)	2.13	-12.51***
		거짓말 아님	38(14.2)	4.89	
	6. 악의없는 거짓말 - 이타적 거짓말	거짓말	234(87.3)	3.46	-2.09*
		거짓말 아님	34(12.7)	5.09	
	7. 욕설	거짓말	139(51.9)	5.37	6.80***
		거짓말 아님	129(48.1)	4.13	

*p<.05, **p<.01, ***p<.001

※ 8, 9, 10, 14번은 sample 차이가 너무 커서 통계분석결과 제시방법의 관례에 따라 t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분포만 제시

시하지 않고 분포만 제시 하였다. 분포로 나타난 결과에서 거짓말이라고 바른 판단을 한 유아들의 도덕적 판단도 더 정확한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쁜 의도-나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쁜 의도-좋은 결과」는 sample의 분포차이가 크지 않아 t-test를 실시한 결과, 거짓이라고 바르게 판단한 유아는 나쁜 행동이라고 바르게 판단하였으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유아는 크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9.86$, $p<.001$). 즉, 거짓말 판단과 선악 판단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B유형의 경우는 거짓말이 아니며 나쁜 행동이 아닌 상황이고, 이를 거짓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한 유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선악판단도 더 정확했으며 반대로 이를 거짓이라고 잘못 판단한 유아는 나쁜 행동이라고 선악판단도 잘 못하는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5.89$, $p<.001$; $t=-13.03$, $p<.001$, $t=-21.41$, $p<.001$; $t=-9.78$, $p<.001$). 즉, 이야기 A유형과 마찬가지로 거짓말 판단과 선악판단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C유형은 거짓말이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로 이를 거짓말이라 바르게 판단한 유아들은 나쁜 행동이라고 선악 판단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를 거짓말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유아들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바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더 커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6.35$, $p<.001$; $t=-12.27$, $p<.001$, $t=-12.51$, $p<.001$; $t=-2.09$, $p<.05$). 이 결과는 거짓말 판단과 선악 판단의

경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 A, B유형에서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경향이 유사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D유형은 「욕설」로 거짓말이 아니지만 나쁜 행동인 상황이며, 욕설을 거짓말로 잘못 판단한 유아는 이를 나쁜 행동으로 보는 정도가 더 컸고, 욕설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바르게 판단한 유아는 이를 나쁜 행동이라고 보는 정도가 더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80$, $p<.001$). D유형 역시 거짓말 판단과 선악 판단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 이야기 A, B유형과는 달리, 거짓말 판단과 선악판단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VI.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의 거짓말 판단 및 도덕적 판단능력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과 이야기의 종류 및 거짓말 여부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판단과 도덕적 판단 성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인 수준에서의 도덕교육이 아닌 유아 눈높이에 맞는 도덕 교육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거짓말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5세가 4세보다 거짓말에 대한 판단을 잘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거짓말인 경우 보다는 거짓말이 아닌 경우 판단을 잘하는 경향이 있

었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살펴본 결과, 14개의 이야기 중 4개의 이야기에서만 연령차이가 나타나서 대체로 큰 연령차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인 경우의 2개의 이야기에서는 5세아보다 4세아가 거짓말에 대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였으며, 거짓말이 아닌 경우 2개의 이야기에서는 4세아 보다 5세아가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하였다.

셋째, 이야기 종류에 따라 거짓말 판단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다. 유아들은 이야기에 따라 결과중심의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의도중심의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넷째, 모든 이야기 종류에서 거짓말 판단에 따라 도덕적 판단은 유의한 차이가 났으나, 이야기 종류별로 도덕적 판단의 정확성과 흐름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거짓말 이야기 14가지 중 7가지 이야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5세 유아가 4세 유아보다 판단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좋은 의도를 파악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짓말이나 실수로 한 거짓말 또는 악의 없는 거짓말에서 연령차가 드러났고, 자기 방어적 거짓말과 나쁜 의도를 가진 거짓말 이야기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 유아로서는 아직 좋은 의도까지 고려해서 거짓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정도로 도덕적 인지수준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알려 주는 결과이며, 실수나 악의 없는 거짓말

에서도 마찬가지로 4세 유아가 의도 파악에 실패한 것을 보여 준다. 반면 5세 유아는 4세 유아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같은 유아임에도 거짓말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 Piaget가 제시한 연령보다는 훨씬 어린나이인 5세 유아가 거짓말 판단을 상당히 정확한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4세 유아는 거짓말 판단에 차이가 있어 거짓말 판단이 유아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아제가 제시한 연령보다는 어린 아동이 의도를 고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적 판단력이 높아진다는 거짓말의 개념 및 판단능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권향숙, 1989; 김신옥, 1987; 손은경, 2002; 오유리, 2008; Bussey, 1992; Peterson & Seeto, 1983)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도중심의 판단을 한다는 연구(김경희, 2000; 김신옥, 1987; 조성희, 1998; Bearison & Isaacs, 1975; Melda, 1980; Piaget, 1932)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롭게도 거짓말인 경우보다는 거짓말이 아닌 경우 거짓말 판단에서 유아들이 더 많은 연령차를 보였다. 즉, 5세 유아에 비해 4세 유아가 거짓말 판단을 더 잘못하는 경향은 거짓말이 아닌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측정 방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유아기 도덕성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결과로, 4세 유아들이 “거짓”이라는 단순한 조건의 판단보다는 “거짓이 아님”이라는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 질문에 더 낮은 이해도를 보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

다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차이는 많지 않았으나, 차이가 나타난 4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4, 5세가 도덕적 판단에서 고려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세아가 더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닌 경우(좋은의도-나쁜결과, 좋은의도-좋은결과)이고, 4세아가 더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한 이야기는 거짓말인 경우(과장, 농담)로, 앞서 거짓말 판단에 있어 이루어졌던 논의와 같은 논리로 이해가 가능하다. 즉,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복잡한 명제일 경우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하기에 4세아의 이해력이 아직 부족하여 5세아가 더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서 4세와 5세간의 발달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피아제가 제시한 것 보다 이른 연령인 5세 유아의 ‘거짓’과 ‘거짓이 아니’라는 추상적이면서도 상반된 명제에 대한 이해능력을 보인 것이다. 또한 단순히 상반된 명제에 대한 이해능력 뿐 아니라 그러한 명제를 가정삼아 다음의 도덕적 판단을 연결하여 추론할 수 있는 상당히 진일보된 정신적 조작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유아기에 해당되더라도 4세와 5세 사이는 이러한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거짓말인 경우(과장, 농담)의 이야기에 대해 4세아가 5세아보다 더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한 데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세아가 「과장」, 「농담」의 이야기를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의 의도 뿐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조건까지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든지, 오해를 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든지 등의 더 많은 기준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기에 4세아처럼 단순히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거짓말 판단에서 의도외의 상황이나 개인적 믿음도 작용할 것이라고 한 박영아(2009)의 예측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령차는 유아의 도덕 교육에 있어 4세와 5세간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차이의 기준을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명제를 추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셋째, 이야기 종류별 거짓말 판단을 살펴보면, 이야기 종류에 따라 거짓말 판단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 이야기에 따라 유아들이 결과중심의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짓말 판단 분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4개의 이야기 중 10개의 이야기에 대해 바른 거짓말 판단을 한 유아의 수를 보면, A유형은 거짓말이며 나쁜 사람인 경우로 4개의 이야기에서는 거의 모든 유아가 거짓말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나쁜 행동이라는 판단도 잘하여 4, 5세 유아들도 의도중심의 거짓말 판단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유형과 C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14개의 이야기 중 4개의 이야기에서는 거짓말 판단을 잘못된 유아의 수가 바르게 판단한 유아의 수보다 많았다. A유형의 「나쁜 의도-좋은 결과」, B유형의 「실수-방향추측」,

「좋은 의도-나쁜 결과」, D유형의 「욕설」이 이야기가 그것이다. 「나쁜 의도-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거짓임에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 유아가 더 많았고, 「실수-방향추측」, 「좋은 의도-나쁜 결과」, 「욕설」에 대해서는 거짓이 아님에도 거짓말이라고 한 유아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 즉, 상황에 따라 유아들이 결과중심의 거짓말 판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나쁜 의도를 가졌으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유아가 더 많이 있었으며, 좋은 의도를 가졌으나 나쁜 결과가 나왔으니 거짓말이며, 실수이긴 하나 방향을 잘 못 알려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욕설을 하여 사회규범을 어기고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하였으니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모두 거짓말을 의도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올바른 거짓말 판단을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결과에 있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나이추측」은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 결과에서 상대가 피해를 입지 않으나 「방향추측」은 사실과 다를 경우 상대방이 길을 잃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들이 거짓말을 판단함에 있어 의도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또는 부정적 결과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유아의 이러한 판단성향이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인지적 미성숙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는 공감능력의 발달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아 도덕성 연구에서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영역이 함께 접근되어야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4개의 이야기 중 10개의 이야기에서 거짓말 판단을 잘 하였다는 결과는 4, 5세 유아의 거짓말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해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모든 이야기 종류에서 거짓말 판단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경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야기 종류별로 도덕적 판단의 정확성과 흐름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모든 이야기에서 거짓말 판단에 따라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유아의 도덕적 판단이 거짓말 판단여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도덕적 판단의 경향을 좀 더 살펴보면, 거짓말 판단이 도덕적 판단의 전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거짓말 판단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유형처럼 거짓말이며 나쁜 행동을 한 경우 거짓이라 바르게 판단한 유아는 이를 나쁜 행동이라고 여기는 성향이 높고, 거짓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유아는 이를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는 성향이 있었다. 즉, 거짓말 판단을 잘 한 유아들이 도덕적 판단도 잘 하여,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경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거짓말 판단을 잘못된 유아가 더 많았던 「나쁜 의도-좋은 결과」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제한점으로 4가지 이야기에서 96%이상 모든 유아들이 거짓말 판단을 잘하여 sample 차이가 너

무 크게 나타나 t검증을 하지 않고 분포만 제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B유형은 거짓말이 아니며 나쁜 행동이 아닌 상황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4가지 이야기 중 2가지 이야기는 거짓말 판단을 잘못된 유아가 많았으나, 일단 거짓이 아니라고 정확히 판단한 유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도덕적 판단을 잘 하여 거짓말이라고 그릇된 판단을 한 유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유형 역시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A, B유형과 달리 C, D유형은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경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C유형은 거짓말이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로, 거짓말이라 바르게 판단한 유아는 나쁜 행동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거짓말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유아가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바르게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D유형 또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나쁜 행동인데, D유형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 「욕설」에 대해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단을 잘 한 유아가 조금 더 적었으며 이들은 나쁜 행동이라고 보는 정도가 더 낮았고, 거짓말이라고 잘못 판단한 유아들이 나쁜 행동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더 잘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C유형과 D유형에 대해서는 거짓말 판단을 잘 한 유아들이 도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거짓말 판단을 잘못된 유아들이 도덕적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짓말 판단성향과 도덕적 판단성향이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짓말이고 나쁜

경우나(A유형), 거짓말이 아니고 나쁘지 않은 경우(B유형)는 도덕성의 논리적 방향이 일치하는 상황이고, 반면 거짓말이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C유형)나 거짓말이 아니나 나쁜 사람인 경우(D유형)는 도덕적 판단의 논리적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덕적 판단을 위해서는 도덕적 추론의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다. 도덕적 논리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A유형- p, q ; B유형- $\sim p, \sim q$)엔 유아들의 거짓말 판단과 선악판단 방향이 모두 올바르게 나타났고, 반면 도덕적 논리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C유형- $p, \sim q$; D유형- $\sim p, q$)에는 유아들이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 중 하나를 그릇되게 판단하여 좀 더 복잡하거나 모순된 논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추론능력에서 조건적 규칙을 활용한(Keller, et al., 2004)의 연구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추론의 조건이 거짓말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맥락적 요인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도파악을 잘 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유아의 거짓말 판단 내지는 선악판단과 관련이 있지만, 주어진 상황이나 도덕적 논리의 모순 즉, 두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두 이슈의 도덕성의 방향이 일치하는가 여부 또한 유아의 거짓말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에게 도덕적 판단을 기대할 때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졌는가를 진단하고 배려함과 동시에, 한 번에 여러 도덕적 이슈를 제공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설정하여 유아

를 혼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을 발달시키고 효율적인 도덕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지적 능력과 동시에 도덕적 추론의 개념과 논리적 능력 또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유아기의 거짓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말이나 그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원인과 발달적인 특징에 눈을 돌려야 한다. Piaget(1932)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유아기의 거짓말 개념은 성인이 혼계하고, 처벌하고, 비난하며, 진리에 대한 관심을 되풀이해서 가르칠 때 유아는 말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알게 되고, 야단맞는 말, 안 되는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성인의 통제가 가해지면 자율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지연된다고 하였다. Eck(1970)도 아동은 자신과 외부세계를 구분하는 능력, 또한 상상과 실제 있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양극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이때 성인의 통제가 주어지면 아동은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성인의 의견에 따름으로 인정받고 싶어 점차 거짓말을 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개념발달을 도우려면 야단치기보다 이해해야 하고 유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 주고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른의 입장에서만 냉정하게 비판하기 보다는 유아의 도덕적 판단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덕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거짓말 판단 및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연령증가에 따라 발달하며, 4세, 5세 유아도 의도중심의 판단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Piaget(1932)가 유아의 도덕적 판단능력을 다소 과소평가하였다는 선행연구들(Peterson, Peterson, & Seeto, 1983; Wimmer, Gruber, & Perner, 1984; 권향숙, 1989; 김신옥, 1987; 손은경, 2002; 조성희, 1998)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발견했다. 나아가 유아가 판단해야 할 도덕성의 방향에 따라, 또한 주어진 상황과 논리적 모순에 따라, 거짓말 판단 및 도덕적 판단에서 다소간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도 밝혀 유아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넓혔다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질문지 위주로 부모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가 유아들과의 면접을 통해 유아의 거짓말 발달정도와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정도를 점수화 하여 유아들의 발달을 알아 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접근할 때 정서적, 인지적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능력 및 의도파악 인지능력 및 도덕적 추론개념의 이해능력 등을 동시에 고려해 거짓말 판단과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이해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의 설계를 기대한다. 또한 그러한 연구설계에 적합한 면접 자료와 실험 자료를 개발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p, q), (p, ~q), (~p, q), (~p, ~q)의 논리체계를 착함과 나쁨의 도덕적 판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개념적 제한점이 있다. 가령, q가 나쁨이라면, ~q는 나쁘지 않음을 뜻하게 되는데, 나쁘지 않음과 착함은 개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착함과 나쁨을 구분하여 질문하여, 두 개념이 상반되어 있고, 유아가 한 개념의 반대를 상대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을 가지고 출발하였기에 그러한 가정을 전제로 모든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을 좀 더 심도 깊게 접근하고 이를 논리적 체계와 더불어 해석하고자 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나쁘지 않음과 착함의, 또는 착하지 않음과 나쁨의 개념적 차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개념발달을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가 이해한 의도중심의 판단이 유아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4세, 5세의 유아만을 면접하였는데 면접시기가 2학기여서인지 4세와 5세가 거짓말에 대한 의도중심의 판단을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을 보았다. 만 3세도 포함한 거짓말 개념발달을 연구하면 거짓말 판단에 있어서의 연령차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향숙 (1989). 아동의 거짓말 판단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방식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거성 (2008). 한국 투명성기구 청소년 의식조사 설문자료.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피어선 빌딩.
- 김경희 (2000).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43-60.
- 김신옥 (1987). 아동의 거짓말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 (1987). 어린이의 거짓말 개념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2005). 아동발달. 서울: 학지사.
- 박영아 (2009). 아동의 또래 인기도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 한국아동학회지, 29(1), 89-107.
- 박영아 (2008).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79-1091.
- 선미정 (2005).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경 (2002).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양 (2002).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유형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유리 (2008).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남희, 이은정 (2004).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태도 분석. 한국 심리 학회지: 발달, 17(3), 95-115.
- 우혁기 (2003). 언어적 통제유형에서 부모 일치 여부가 유아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옥 (2001).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아동들의 판단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순 (2001). 부모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유아의 도덕성 발달 수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행섭 (2002). 아동의 거짓말 행동과 자아존중 감각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희 (1998). 유아의 거짓말과 실수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명숙 (1988). 부모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투명성기구 (2008. 11. 7). 한국 청소년의 반부패 윤리인식, 아시아 4개국 중 최악. <http://ti.or.kr/tikbbs/>.
- Bearison, V. D., & Isaacs, L. (1975). Production deficiency in children moral judge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732.
-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s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on.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 Eck, M. (1970). lies and truth New York: Macmillan Company.
- Gesell, A. (1946). The ontogenesis of infant behavior. In L. Carmichale (Ed.), *Manual of child psychology*(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offman, M.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Vol.). N. Y.: iley.
- Kant (949).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nd Other Writings in Moral Philosophy*. Net Library.
- Keller, M., Gummerum, M., Wang, X. T., & Lindsey, S. (2004). Understanding perspectives and emotions in contract violation: Development of Deontic and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75(2), 614-635.
- Kessy, B. M. and Maurya, S. N., (1978).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gravid uterus of the. Tanzanian Shorthorn zebu cattle. *Alexandria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3, 255-268.
- Kohlberg, L. (1969). *The relations between moral judgement and moral action*. Colloquium Presented at the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hlberg, L. (1975).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Lee, K. (2000). Lying as doing deceptive things with words: A speech act theoretical perspective. In J. W. Asington(Ed.), *Minds in the making: Essays in honor of David R. Olson*(pp.177-196). Oxford: Blackwell.
- Mahaney. E. J., & Stephens, B. (1974). Two-year gains in moral judgement by retarded and nonretarded person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9, 134-141.
- Melda, M. B., & Strattner-Gregory, M. J. (1980). *Effect of highlighting intention on intentionality and restitutive justice*.
- Perner, J. (1997). Children's competency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a witness: Truth, lies, and moral t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S21-S35.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29).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London: Rout ledge and Kegn Paul.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MacMillan.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MacMillan. (Orrginal Work published 1932)
- Talwar, V., & Lee, K. (2002). Emergence of whilte-lie 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 160-181.
- Talwar, V., Murphy, S.M., & Lee, K. (2007).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for politeness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11.
- Walper, S., & Valtin, R. (1992). Children's understanding of white lies. In W. Winter (Series Ed.), R. J. Watts, S. Ide, & K. Ehlich (Vol. Eds.), *Politeness in language: Studies in history, theory, and practice*(pp.231-251).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59.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Weiner, B., & Peter, N. (1973). A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achievement and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9, 290-309.
- Wimmer, H. Gruver, S., & Perner, J. (1984). Young children's conception of Lying: Lexical realism-moral subjectivism.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7, 1-30.

1 차원고접수 : 2009. 08. 25.

수정원고접수 : 2009. 09. 07.

최종게재결정 : 2009. 09. 08.

Lying and Moral Judgement in Young Children According to Age and Story Type

Jeong, Yeon-Ok

Kwangnam Kindergarten

Han, Sae-Young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young children's patterns of lying and moral judgments according to age and the kinds of stories involved. The participants included 268 four-and five-year-old children attending one of seven educational institutes for young children in Gyeonggi Province. The investigator conducted 1: 1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ir conception of lies and their perceptions of right and wrong. The measurements consisted of 14 stories about lying.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 percentage, and t-test.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age differences in children's ability to judge a lie. Five-year-olds did a better job in their judgments about lying than four-year-olds, whether a story was a lie or not. In particular, the four-year-olds made worse judgments when the story was not a lie than when it was in fact a lie. Second, there were age differences also in children's moral judgments. Third, clea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young children's judgments in regards to lying, in terms of the kinds of stories involved.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judgements of right and wrong according to the lying judgments and the kinds of stories involved. They considered lies told with bad intentions and those told in self-defense to be bad, but also judged the lies which produced negative consequences to be bad for some stories, which indicates that the kinds of stories involved play a role in children's moral judgment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children's intention-based judgments of lies and their conception of right and wrong depends on their age and the kinds of stories being told.

Key word : lying, moral judgment, young children